

봉화 반가사유석상의 조사 (奉化 半跏思惟石像 調査)

黃壽永

(一)

삼국시대(三國時代) 불상양식중(佛像樣式中)에서도 가장 유니크하며 우리나라에서 높이 발달(發達)한 것은 반가사유양식상(半跏思惟樣式像)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 국내(國內)에는 동양(東洋) 신불제국(信佛諸國)에서 다시 비견(比肩)할 자(者) 없는 최우최미(最優最美)의 금동상(金銅像) 이구(二軀)를 전세(傳世)하고 있으니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과 덕수궁미술궁(德壽宮美術宮) 각일(各一)의 국보상(國寶像)이¹⁾

곧 그것이다. 이들은 모두 고(高) 삼척미만(三尺未滿)의 작품(作品)으로서 근년(近年)에는 널리 구미(歐美) 각국(各國)에 전시(展示)되어 그 명성(名聲)을 떨친바도 있었다. 이같은 세계적(世界的) 명품(名品)의 국내보존(國內保存)은 곧 이같은 양식상(樣式像)에 대한 두터운 고대신앙(古代信仰)과 높은 조형미술(造形美術)의 발달상(發達相)을 뒷받침하여 주는 동시에 이들이 모두 종교미술(宗教美術)의 소산(所産)임을 깨닫게 한다. 그리하여 필자(筆者)는 일찍부터 이로써 우리나라 상대조각(上代彫刻)의 하나의 모범을 삼아 왔으며 나아가 그들의 신앙내실(信仰內實)과 그 발달(發達)의 계보(系譜)를 더듬고져 하여 왔다²⁾.

(二)

해방후(解放後) 반가상(半跏像)에 대한 우리의 주목(注目)은 중요(重要)한 신자료(新資料) 검출(檢出)에서 성과(成果)를 얻었으며 비로소 삼국각별(三國各別)의 발달(發達) 및 교류상(交流相)에도 착안(着眼)케 되었다. 그리하여 해방직전(解放直前)에 평양시(平壤市) 평천리(平川里)에서 출토(出土)된 확실한 금동상(金銅像) 일구(一軀)가 새로 조사(調査)되어 고구려(高句麗) 유품(遺品)³⁾

註：1) 이들 兩像에 대하여는 일찍부터 內外學者에 의하여 注目되어 왔으나 아직도 專門的 論考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2) 高裕燮 金銅彌勒半跏像의 考察(「新興」第4號 1931·1稿. 遺著 「朝鮮美術文化史論叢」 收錄)

註：3) 拙稿 「高句麗金銅佛像의 新例 2座」(「李相伯博士回甲 紀念論叢 1964年 9月)金良善 「平壤平川里出土金銅半跏思惟像의 造成年代에 關하여」 「古文化」第三輯 1964, 10), 梅原末治 「平壤平川里 出土의 金銅半跏思惟像」

으로서 국보지정(國寶指定)을 받게 되었으며 그보다 앞서서는 1960年 충남(忠南) 서산(瑞山) 가야협(伽倻峽)에서 발견(發見)된 마애삼존불(磨崖三尊佛)의 좌협시(左脇侍)로서 고삼척(高三尺)이 넘는 반가상(半跏像)⁴⁾

일구(一軀)가 조사(調查)됨으로써 일제말(日帝末) 부여(夫餘) 부소산(扶蘇山)에서 수습(收拾)된 골석소상(滑石小像)과 더불어 가장 확실(確實)한 백제작품(百濟作品)이 비로소 등장(登場)케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종전(從前)에 있어서 반가사유상(半跏思惟像)이라 하면 모두 오직 고신라(古新羅)에만 국한(局限)되어 왔던 시야(視野)와 자료(資料)가 확대(擴大) 점증(漸增)됨으로써 반가상(半跏像) 연구(研究)를 위한 새로운 단계(段階)를 맞이하였던 것이다. 동시에 기존제상(既存諸像)에 대한 우리 관점(觀點)에서의 새로운 고찰과 그 원전래처(原傳來處)와 귀속왕조(歸屬王朝) 및 연대(年代) 등에 대한 추정(推定)과 같은 기초적노력(基礎的努力)이 착수(着手)됨으로써 고신라(古新羅)에 있어서는 경주(慶州)에 앞서서 그 이북판도내(以北版圖內)인 영주(榮州) 및 안동지구(安東地區)가 새로이 주목(注目)을 받게 되었다. 그 이유(理由)의 하나로서는 상기(上記)한 국보(國寶) 금동(金銅) 반가상(半跏像) 이구(二軀)의 출래지역(出來地域)으로서 혹은 안동(安東)이라하고 혹은 영주(榮州) (천천백교씨담(淺川伯教氏談))라고 전칭(傳稱)되어 왔으며 또 일정말기(日政末期)인 1937年 안동(安東) 옥동출토(玉洞出土)의 가장 확실(確實)한 금동상(金銅像)⁵⁾

일구(一軀)가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 반가상연구(半跏像研究)의 역로(歷路)에서 일찍이 주로 외인(外人)에 의하여 기록(記錄) 또는 구전(口傳)되어 오던 태백산하(太白山下) 영주지구(榮州地區) 및 안동지구(安東地區)와 인접할뿐 아니라 고대(古代) 교통로(交通路)에서 이들 지역(地域)과 연결(連結)되었던 봉화군(奉化郡) 물야면(物野面) 북지리(北枝里)에서 이제 거대(巨大)한 반가석상(半跏石像) 일구(一軀)를 새로 발견(發見)하게 됨은 우리나라 반가상(半跏像) 연구(研究)의 적기적소(適期適所)에서 오랫동안 기대(期待)하여오던 걸작품(傑作品)이 출세(出世)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筆者)는 이 신상(新像)을 초대(初對)하면서 아니보이는 손에 이끌려 어느 듯 이곳까지 인도된 깊은 감회가 충심(衷心)의 환희(歡喜)와 교착(交錯)함을 느낄 수 있었다⁶⁾.

(三)

모든 발견(發見)이 다 그러하거나와 참으로 우연(偶然)한 계기(契機)를 잡은 것이 그 실마리이었다. 일고로(一古老)가 말한 「목없는 미륵(彌勒)」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한마디가 곧 그것이었으니 동시에 그것은 부락민(部落民)이 말하는 「거북바위」이기도 하였다. 1965年 11月 24日부터 한국일보사(社)가 주관(主管)하는 신라(新羅) 오악조사단(五岳調査團)이 이곳에서 태백산(太白山) 지구조사(地區調査)의 第一次 대상(對象)으로

(「朝鮮學報」第31輯)

4) 拙稿 環山磨崖三尊佛像에 대하여(「震檀學報」 第20號) 拙稿 百濟半跏思惟 石像小考(「歷史學報」第13輯 1960年 10月)

5) 이 小像은 現在 國立博物館 慶州分館에 所藏되고 있다. 總督府博物館陳列品圖鑑 第12輯

註：6) 이 奉化像이 發見된 直後에 필자는 간략하게 소개한바 있었다. 「奉化發見의 半跏思惟像」(「考古美術」6 券 12號 1965年 11月)

서 거대(巨大)한 마애석불좌상발굴(磨崖石佛坐像發掘)에 착수(着手)한지 第 3日인 26日 오후(午後)의 일이었다. 이 석상(石像)을 초견(初見)하고 돌아온 정영호(鄭永鎬) 윤용진(尹容鎭) 양씨(兩氏)의 환희(歡喜)에 넘친 보고(報告)에 따라서 마침 이때 봉화군(奉化郡) 물야면(物野面) 북지이리(北枝二里) 수월암(水月庵)의 발굴(發掘) 현장(現場)에 당도하였던 이대(梨大) 진홍섭교수(秦弘燮教授) 경북대(慶北大) 나병욱교수(羅炳旭教授)와 필자(筆者)는 즉각 다시 이 신상(新像)의 발견현장(發見現場)으로 그들과 달려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틀림없는 반가사유형원상(半跏思惟形圓像)의 거대(巨大)한 하반신(下半身)과 그밑의 일석조(一石造)로 된 원형대좌(圓形臺座)를 볼 수가 있었다.

이 소재처(所在處)는 같은 북지리(北枝里) 구산동(龜山洞) 속칭(俗稱) 「소북골거리」라고 부르는 지점(地點)으로서 이에 접근(接近)하여 근세(近世)의 작은 민묘(民墓) 이기(二基)가 상하(上下)에 자리잡았으며 그 부근(附近)에는 상고(上古)의 와편다수(瓦片多數)가 산포(散布)되고 있었다. 지형(地形)을 살펴보면 높이 約 二, 삼십미(三十米)의 낮은 구릉(丘陵)이 남북(南北)으로 길게 뻗어 있어 곳곳에 깊지않은 계곡(溪谷)을 이루고 있으며 東으로는 완만(緩慢)한 경사(傾斜)를 이루며 넓은 시야(視野)가 전개(展開)되어 멀리 준령(峻嶺)을 대(對)하였고 가까이는 봉화(奉化)에 이르는 봉화천(奉化川)이 흐르고 있었다. 이 저구(低丘)와 평지(平地)가 접(接)하는 이 대지(臺地)는 상기(上記)한 북지리(北枝里) 이구(二區)의 수월암(水月庵) 마애좌상(磨崖坐像)으로부터는 南으로 불과(不過) 1km미만(未滿)이며 봉화(奉化)에서는 평탄(平坦)한 도로(道路)를 따라 약 8km 다시 북상(北上)하면 約16km로서 태백산(太白山) 부석사에 이르게 된다. 이와같이 태백산(太白山) 주봉(主峰)을 멀리 동북(東北)으로 원망(遠望)하고 있가는 하나 결코 산간(山間)이 아닌 평지(平地)의 저구(低丘)밑이어서 일견(一見) 대찰(大刹)이 고정(古定)한 곳으로는 짐작되지 않는다. 그러나 북지리(北枝里) 마애좌상(磨崖坐像)이 자리잡은 사지(寺址)가 그러하듯이 이곳 전면(前面)으로는 현재(現在) 전답(田畓)으로 개간된 넓은

의 골석제(滑石製) 반가상(半跏像)(이것 또한 하반부(下半部)만이 남아 있다) 과도 동계(同系)에 속(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양상(兩像)과의 흡사점(恰似點)은 세부수법(細部手法)에서도 여러점(點)을 지적(指摘)할 수가 있는데 예(例)컨데 반가(半跏)된 우족(右足) 끝에 수지(手指)만을 남긴 좌수(左手)의 배치형식(配置形式)이 또한 그러하다.

다음에 전면(前面)을 주(主)로하여 수하전개(垂下展開)되어 있는 의습문(衣褶紋)의 표현(表現)은 이 작품(作品)의 가장 우수한 조법(調法)을 보이는 것으로서 층층(層層)이 겹쳐서 밑으로 흐르는 의단(衣端)의 주름은 평판적(平板的)인 선각(線刻)이 아니라 사실적(寫實的)인 수법(手法)으로 굴곡면(屈曲面)을 뚜렷하게 표현(表現)하고 있다. 다시 전면(前面)에서 언급(言及)하여야 할 것은 수하(垂下)된 좌족부(左足部)의 양식(樣式)인바 현재(現在) 족부(足部)는 결실(缺失)되었으나 그 하단이면(下端裏面)에 원형천공(圓形淺孔)(경(徑) 15cm) 상기(上記)한 백제골석소상(百濟滑石小像)에서는 방공(方孔)을 이루고 있다. 이 마련되고 있는 점(點)에서 좌족(左足)만은 별조(別造)되어서 이곳에 연결(連結)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같은 방식(方式)은 또한 상기(上記)한 부여(夫餘) 골석상(滑石像)과도 동일(同一)하며 또 한국(韓國)의 거대입상(巨大立像)의 족부(足部)가 대좌(臺座)위에 별조(別造)되는 방식(方式)과도 통하고 있다. 이같은 추정(推定)은 익년(翌年) 1

月 7月에 이르러 이 반가상(半跏像)이 경북대(慶北大) 박물관(博物館)으로 긴급이치(緊急移置)될 때 그 부근(附近)에서 새로 발견(發見)된 원형(圓形) 연화좌(蓮華坐) 일개석(一個石)의 존재(存在)로서 더욱 굳어졌는바 이 연화석(蓮花石)은 좌족하단(左足下端)에 놓이어서 그 중앙(中央)의 원좌(圓座)에는 다시 별조(別造)된 좌족(左足)을 감입(簍入)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화좌(蓮花座)는 경(徑) 70cm의 원반(圓盤)인데 그 중앙(中央)에는 타원형공(橢圓形孔)(경(徑) 36cm×34cm)이 파져있고 그를 돌아서 복판연화칠엽(複瓣蓮花七葉)이 있는바 사엽(四葉)은 크고 삼엽(三葉)은 작아 전후(前後)의 위치를 짐작케한다. 그 연화배치형식(蓮花配置形式) 및 연화문(蓮花紋)이 또한 덕미상(德美像)이 갖고있는 족좌(足座)와 그 후면(後面) 깊숙이 남은 원형(原形)의 연문(蓮紋)과 동식(同式)임이 주목(注目)되어야 할 것이다.⁷⁾⁸⁾

이 덕미상(德美像)의 좌족(左足)은 일찍이 절단(折斷)되어서 현재(現在)의 것이 후보(後補)임은 필자가 이를 지적(指摘)한바 있었다.⁹⁾

측면(側面)에 있어서는 좌우(左右)가 대동소이(大同小異)하여서 모두 요대(腰帶)에서 비대(紕帶)가 수하(垂下)되고 있으며 그 중간(中間)에 큰 원환(圓環)을 달고 있다.¹⁰⁾

그리고 특이(特異)한 것은 이 비대(紕帶)외(以外)에 우측면(右側面)에만 일조(一條)의 영낙대(瓔珞帶)가 마련되어서 신부우측(身部右側)을 장식(裝飾)하고 있는 수법(手法)이다. 이 영낙대(瓔珞帶)는 수단(數段)의 등근 주문대(珠紋帶)가 상하(上下)에 있고 그 중간(中間)에 구형(矩形)의 환형(環形)이 이를 연결(連結)하고 있는 양식(樣式)인바 이것은 우측비대(右側紕帶)의 하반(下半)을 따로 이곳에만 표현(表現)시킨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후면(後面)은 전면(前面)에 비할 때 더욱 넓고 그 조각(彫刻)도 평면적(平面的)이며 매우 간략하다. 그리하여 요대(腰帶)밑으로는 상하(上下)로 사행(斜行)하는 의문(衣紋)이 선각(線刻)되었으며 다시 그밑에는 작은 단판양연대(單瓣仰蓮帶)가 돌려 있어서 신부(身部)를 받게하였다. 이같은 수법(手法)도 부여(夫餘) 소석상(小石像)이나 상거(上擧)한 평양(平壤) 평천리출토(平川里出土)의 금동반가상(金銅半跏像)의 수법(手法)과 전혀 동일(同一)하며 또 경주박물관소장(慶州博物館所藏)의 송화산원재(松花山原在)의 반가석상(半跏石像)¹¹⁾

에서도 지적(指摘)할 수가 있다. 그리고 다시 그밑으로는 평행중선(平行縱線)이 새겨졌을 뿐 의습문(衣褶紋)을 생략(省略)하고 있는바 그 중앙(中央)으로부터 약간(若干) 하부(下部)에는 철형(凸形)의 일공(一孔)이 파져 있어서 이 석상(石像)의 고정(固定)을 위한 장치공(裝置孔)으로 생각된다. 이같은 장치수법(裝置手法)은 이 석상(石像)의 하저면(下底面) 좌우단(左右端)에도 각일개처(各一個處)씩 장방형(長方形)으로 마련되고 있는데 이 하저평면(下底平面)은 전면(前面)이 좁은 계형(梯形)(좌우(左右) 1m20cm 전후(前後) 80cm)을 이루고 평탄(平坦)하다. 그리하여 이 저면(底面)은 다시 지대석(地臺石)위에 놓이어서 서로 고정(固定)시켰던 것으로 보이나 그 존부(存否)와 그것이 무문석(無紋石)

7)

7)

9) 拙稿「德美金剛半跏思惟像의 左足과 連坐」 「考古美術」 3卷 11號 1962年 11月

10) 이같은 □帶樣式이 또한 德美像과 매우 類似하다.

11) 1916年 慶州市 忠孝里 松花山으로부터 慶州博物館에 移安된 石像을 가리키는 바 高 約1.25米로서 이 新像과의 比較는 다른 기회를 얻고져 한다.

인지 또는 연화문대석(蓮花紋臺石)인지는 발견(發見)당시의 지견(知見)으로서는 무어라 말할 수가 없었다. 앞으로 다른 부재(部材)의 검색(檢索)과 더불어 이 소재지점(所在地點)에 대한 학술발굴(學術發掘)에 기대(期待)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동시에 이 석상(石像)의 소재지점부근(所在地點附近)에는 상기(上記)한바와 같이 다수(多數)의 고대와편(古代瓦片)이 산란(散亂)하고 있는바 그중에는 신라통초경(新羅統初頃)으로 올라가는 평와편(平瓦片)도 혼재(混在)하고 있었으며 또 후대(後代)의 것도 주목(注目)되었다. 동시에 민묘(民墓)(상방(上方)을 중심(中心)으로 그 남측(南¹²)側)에는 동서(東西)로 석재이개(石材二個)가 지하(地下)에 매몰(埋沒)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또 부락민(部落民)에 의하면 이곳으로부터 석재(石材)가 반출(搬出)된 사실(事實)이 있었으므로 썬 이들 유물(遺物)에 대한 고찰(考察)과 수습(收拾)은 앞으로 이 석상(石像)의 복원(復元)과 그 연대(年代) 및 봉안방식(奉安方式)을 구명(究明)하는 자료(資料)를 제공(提供)하여 줄것으로 생각된바도 있었다. 고대(古代)의 원각존상(圓刻尊像)은 처음부터 노불(露佛)로서 안치(安置)되는 일은 없었다고 하겠으며 비록 마애석불(磨崖石佛)인 경우에 있어서도 목조전당(木造殿堂)을 그앞에 가구(架構)함이 통례(通例)이기 때문이다. 금차(今次)의 조사(調査)에서 물야면(物野面) 마애좌상(磨崖坐像)에도 목조가구(木造架構)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確認)되었는바 그후 이 원조(圓彫) 반가상(半跏像)에 대한 경북대박물관(慶北大博物館)에 의한 조사(調査)는 또한 이같은 목조건물(木造建物)의 존재(存在)와 석상(石像)의 기대석(基臺石)등을 밝혀주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이 석상연대(石像年代)는 이같은 종합적(綜合的)인 자료(資料)의 정리(整理)를 기다려서 판정(判定)되어야 할 것이나 우선 석상(石像)의 현상(現狀)에 대한 양식고찰(樣式考察)만을 통하여서도 칠세기(七世紀)로 추정(推定)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반가양식상(半跏樣式像)이 삼국시대(三國時代)에 주로 유행(流行)한 사실(事實)만으로써 삼국기(三國期) 고신라(古新羅)로 한정(限定)되어야 할지 또는 통일초기(統一初期)까지 실연대(實年代)를 강하(降下)하느냐하는 문제(問題)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五)

이 석상(石像)은 현상(現狀)으로서 전고(全高) 160cm 측폭(側幅) 約 1m에 달하고 있다. 그리하여 고신라(古新羅)의 영역(領域)에서 발견된 두 번째의 원각(圓刻)의 유상(遺像)이며 경주이외(慶州以外)의 지역(地域)에서 출현(出現)한 것으로서는 최초(最初)의 작품(作品)이다. 그리하여 상항(上項)에서 간단하게 설명한바와 같이 이 석상의 형식(形式)이나 세부수법(細部手法)이 보이는 특색(特色)이 기지(既知)의 삼국시대(三國時代) 제상(諸像) 특히 고구려(高句麗)와 백제작품(百濟作品)들과 매우 유사(類似)함을 보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같은 석상(石像)인 점(點)에서 더욱이 부여출토(夫餘出土)의 골석소상(滑石小像)과 또는 서산운산면(瑞山雲山面) 삼존상중(三尊像中)의 좌협시(左脇侍)인 마애반가상(磨崖半跏像)과 동식(同式)이며 금동상(金銅像)에 있어서는 덕미상(德美像)과 양식(樣式)이나 조법(彫法)이 매우 유사(類似)하고 있음을 지적(指摘)하였다. 동시에 이 석상(石像)은 고구려(高句麗) 유일례(唯一例)인 평양출토(平壤出土)의 금동반가상(金銅

7)

半跏像)(2항상주(項上註) 참조(參照))과도 동일점(同一點)을 보이고 있음에서 이 석상(石像)이 지니는 양식계(樣式系)가 또한 삼국(三國)중의 이국(二國)과 서로 긴밀하게 계보(系譜)를 이을 수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반가형석상(半跏形式像)은 먼저 고구려(高句麗)에 전달(傳達)되었으며 이어서 백제(百濟)에 이르러 높은 발달(發達)을 이루었다고 추정(推定)되는 바인데 이와같은 고찰(考察)이 정확(正確)하다 한다면 이 석상(石像)은 이같은 북방(北方) 내지(乃至) 서방(西方)으로부터의 영향밑에서 조형(造形)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¹³⁾

특히 봉화는 태백산을 사이에 두고 오랫동안 고구려(高句麗)와 접경(接境)되었으며 또 영주(榮州)와 더불어 고신라(古新羅)의 북단(北端)에 있어 서방(西方) 백제(百濟)와도 교통(交通)이 터져 있었을 것이므로 이 지역(地域)이 고신라기(古新羅期)에 있어 북서방(北西方)으로부터 전달(傳達)되는 불교문화(佛敎文化)의 일선진적중심(一先進的中心)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백제불교문화(百濟佛敎文化)의 일중심(一中心)이 국토내(國土內) 서북방(西北方)이며 국도(國都)인 공주(公州)나 부여(夫餘) 이북(以北)인 오늘의 당진(唐津) 서산지구(瑞山地區)에 편재(偏在)하여 주로 해로(海路)를 통한 고구려(高句麗) 내지 중국(中國)과의 교통(交通)을 통하여 그곳에 선진문화(先進文化)의 일선(一線)을 이루었고 그에 따라서 오늘 백제최고(百濟最古)의 우수(優秀)한 석상(石像) 사례(二例)를 출현(出現)케한 사실(事實)과도 대비(對比)되어야 할 것이다.¹⁴⁾

문헌(文獻)에 의하여 보더라도 일찍이 고구려(高句麗)와 관계있던 영토(領土)이었다는 사실(史實)은 주목(注目)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이 석상(石像)과 인근(隣近)하여서 동일장소(同一場所)에 신라최대(新羅最大)의 마애좌상(磨崖坐像)이 유존(遺存)하고 있는 사실이나 또는 이곳서 근거리(近距離)에는 신라통초(新羅統初)의 명찰(名刹)인 태백산(太白山) 부석사(浮石寺)가 경영(經營)되었고 영주봉화일대(榮州奉化一帶)에 남은 다수(多數)의 고대(古代) 조상(彫像)과 사지(寺址)등에서 미루어 이 지역(地域)을 중심으로 일찍이 불교문화(佛敎文化)가 개화(開花)되었던 사실을 넉넉히 짐작할 수가 있다. 이것은 신라불교(新羅佛敎)가 육로(陸路)를 통하여 北으로부터 파급(波及)된 역사(歷史)와도 상응(相應)될 것이며 이같은 불교전달(佛敎傳達)의 역로(歷路)에는 北으로부터 영주봉화지구(榮州奉化地區) 또는 안동지구(安東地區)같은 불교문물(佛敎文物)의 지방적(地方的) 중심지구(中心地區)를 형성(形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상거(上擧)한 바와같이 안동옥동사지(安東玉洞寺址)에서 금동반가소상(金銅半跏小像)의 가장 확실(確實)한 유례(遺例)가 출토(出土)된 사실(事實)이나 또는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 국보금동반가상(國寶金銅半跏像)이 안동부근(安東附近) 출토(出土)라고 구전(口傳)되고 있는 사실은 아직도 확인(確認)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같은 역사적(歷史的) 배경(背景)을 암시(暗示)하는 것으로 해석(解釋)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筆者)가 조사한바에 의하면 국보(國寶) 금동반가상(金銅半跏像)이 또한 영주(榮州) 일사지(一寺址)에서 일인경찰서장(日人警察署長)에 의하여 주목반출(注目搬出)되었다는 다른 일설(一說)이¹⁵⁾

13) 필자는 新羅初期石像의 調査를 통하여 그들이 百濟樣式과 매우 近似함에 着眼한바 있었다. 軍威三尊 石像같은 것도 그 一例라 하겠는데 이 奉化石像에서 또한 百濟作品과의 同一樣式을 인정할 수가 있다면 이 奉化石像은 高句麗 樣式과 더불어 百濟 石彫美術의 影響을 直接 받은 것이다. 百濟는 石搭毘 만이 아니라 石像 石燈 등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石彫美術의 先進國이다.

14) 東國輿地勝覽 卷25 榮州郡 및 奉化縣에 「本高句麗奈己郡」 「本高句麗古斯馬縣」이라 하였다.

15) 이것은 1961年頃 日本 千葉縣에서 日政初 美術品 收集事情에 밝은 故淺川伯教氏를 訪問하였을 때

있기도 하나 현존(現存)하는 양구중(兩軀中) 어느 것인지 또는 그들을 모두 가르키는 지 분명(分明)하지는 못하다. 봉화(奉化)에서의 이 거대(巨大) 석상(石像)의 돌연(突然)한 출현(出現)은 또한 결코 우연만이 아님을 앞으로의 조사(調查)에서 밝혀내야 할 것이다.¹⁶⁾

동시에 이같은 반가사유형상(半跏思惟形像)이 미륵보살(彌勒菩薩)이라고 불리워지는 까닭도 한국불교신앙(韓國佛教信仰)의 변천(變遷)과 그 내실(內實)을 통하여 판정(判定)되어야 할 때가 근접(近接)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韓國)의 반가양식상(半跏樣式像)은 비록 그 연원(淵源)이 인도(印度) 또는 중국(中國)에 있다고 하나 그것을 크게 발달시킨 것은 우리나라 삼국시대(三國時代)였으며 그 영향은 일본(日本)에¹⁷⁾ 전달(傳達)되어 그곳 초기불상(初期佛像) 삼대양식계(三大樣式系)의 하나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 半跏像에 대한 연구(研究)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금 느끼면서 이 봉화석상(奉化石像)의 출현(出現)을 하나의 이정표(里程標)로 삼고져 하는 바이다. 하물며 이 신상(新像)은 비단 원각(圓刻)의 거구(巨軀)인 점(點)에서뿐 아니라 그가 지니는 양식적(樣式的) 특징과 탁월(卓越)한 조법장중(彫法莊重)한 작풍(作風) 등에서 삼국기(三國期) 반가양식상(半跏樣式像)에 대한 고찰(考察)을 위하여 새로운 귀중작품(貴重作品)이 될만하다. 이 신상(新像)이 오늘에 추가(追加)되므로써 이제 우리는 기출(既出)의 제상(諸像)을 넣어 삼국(三國)의 확실한 조상례(造像例)를 구비(具備)하게 된 사실 또한 특기(特記)할만 하다. 하물며 이 신상(新像)이야말로 동양최대(東洋最大)의 석제원각(石製圓刻)의 거상(巨像)이 될 뿐 아니라 비범(非凡)한 작가(作家)에 의한 회심(會心)의 걸작(傑作)임에서 우리는 그 출세(出世)를 더욱 반갑게 맞이하였던 것이다. 파괴일실(破壞逸失)된 그 상반신(上半身)이나 광배(光背)의 존부(存否)등 앞으로 다시 우리의 정성(精誠)을 그 검색(檢索)에 모아야하는 까닭이 이같은 곳에 있다.

【추기(追記)】

이 석제반가사유상(石製半跏思惟像) 소재지점(所在地點)에 대한 제일차조사(第一次調査)는 1966年 6月 28日부터 일주일간(一週日間) 이 석상(石像)을 이관(移管)한 경북대학교(慶北大學校) 박물관(博物館)에 의하여 실시(實施)된바 있었다. 그리하여 기대(期待)하였던 석상(石像)의 상반신부편(上半身部片)을 찾지는 못하였으나 그 원봉안지점(原奉安地點)과 그 방법(方法) 및 상부목조가구(上部木造架構)의 존재(存在)와 그 규모(規模)의 일부(一部)를 노출(露出)시킬 수 있었다. 동시에 재명와편(在銘瓦片)을 포함(包含)하여 나여(羅麗)와 그 이후(以後)로 보이는 와류(瓦類)의 수습(收拾)에서 장구(長久)한 세월(歲月)에 걸쳐서 이 불전(佛殿)이 존속(存續)된 사실(事實)이 추정되었으며 동시에 지하(地下)에서 밝혀진 자연암면(自然岩面)을 깎아서 마련된 대좌(臺座)의 양식(樣式)도 명백(明白)히 할 수가 있었다. 이 조사내용(調查內容)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발표

問議한바에 의한 것이다.

16) 1960年 慶北 聞慶郡 聞慶面 觀音里에서 泰弘燮教授에 의하여 새로 調査된 磨崖半跏思惟形 獨尊像 (高 約1.9米)은 年代가 降下되는 것이라고는 하나 이와 아울러 注目할 만 하다. 同氏報文 「聞慶觀音里의 石佛과 石塔」(「考古美術」의 1960年 9月)

17) 百濟로부터 日本에 傳達된 彌勒石像一軀(「日本書紀」敏達天皇13年 9月 條)를 半跏像으로 推定된 藤澤一夫氏의 下記論文은 夫餘出土石像의 考察과 더불어 參考될만 하다. 「鹿沈臣百濟將來彌勒石像說」(「史跡と美術」第177號 1947年 3月判)

(發表)가 있었으나 그 전모(全貌)는 앞으로 간행(刊行)될 한국일보사(社) 주관(主管) 「신라오악조사보고서(新羅五岳調查報告書)」에 포함(包含)될 것이다.

윤용진(尹容鎭) : 봉화반가사유석상지발굴개요(奉化半跏思惟石像址發掘概要)(「고고미술(考古美術)」 7권(券) 10호(號) 1966年 10月 고고미술동인회간(考古美術同人會刊))



봉화반가사유상(奉化半跏思惟像)



동상좌측면(同像左側面)



동상우측면(同像右側面)



봉화상배면(奉化像背面)



봉화상족좌(경북대)(奉化像足座(慶北大))



봉화상(奉化像)의 연화문족좌(蓮花紋足座)



부여출토백제골석반가상(夫餘出土百濟滑石半跏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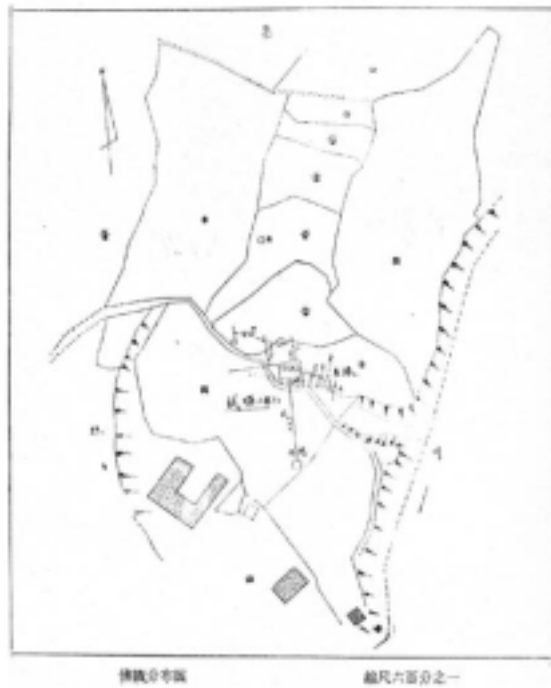
경주송화산원재석조반가상(松花山原在石造半跏像)



평양평천리출토고구려금동반가상(平壤平川里出土高句麗金銅半跏像)(국보118호)

홍천 동창리 불적
(洪川 東倉理 佛蹟)

姜 仁 求



불적분포도(佛蹟分布圖) 축척육백분지일(縮尺六百分之一)

1. 조사경위(調查經緯)



圖 1. 사지원경(寺址遠景)

금년(今年) 4월 23일에 강원도당국(江原道當局)으로부터 홍천군(洪川郡) 내촌면(乃村面) 물걸리(勿傑里)에 거주(居住)하는 불자(佛子) 전석남(全錫南)은 전기리(前記理) 탑촌동(塔村洞) 589(답(畓))에 전(前)부터 보존(保存)되어온 석조불상이구(石造佛像二軀)를 신앙(信仰)하고자 불당(佛堂)을 건립하던 중 4월 23일에 금동여래입상(金銅如來立像)을 비롯한 석조불상(石造佛像) 및 광배(光背)를 발견(發見)하였다는 보고(報告)를 접(接)하고 5월 17일에 현지(現地)에 출장(出張)하여 조사(調查)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불적(佛蹟)이 발견(發見)된 지역(地域)은 홍천읍(洪川邑)에서 북(北)쪽으로 80여리(餘里), 원주(原州)~인제간(麟蹄間) 국도(國道)에서도 60리(里)나 되는 깊은 궁곡(窮谷)의 대천변(大川邊)에 위치(位置)하고 있다. 이 지역(地域)은 세장(細長)의 계곡평야(溪谷平野)가 일찍부터 발달(發達)하여 이조시대(李朝時代)에는 동창리(東倉里)란 지명(地名)이 가리키는 바와 같이 조창(漕倉)이 설치(設置)되었던 곳으로 현금(現今)도 행정구역(行政區域)과는 관계(關係)없이 동창리(東倉里)로 전칭(傳稱)되어 오고 있다.

사지(寺址)는 직근(直近)에 관류(貫流)하는 대천(大川)(폭(幅) 50m)과 거의 같은 방향(方向)인 북(北)에서 남(南)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사역(寺域)은 근(近) 3,000여평(餘坪)으로 전지역(全地域)에서 와편(瓦片)과 석재(石材)가 산견(散見)되고 있다.

필자(筆者)가 현지(現地)에 도착(到着)하였을 때는 이미 전기(前記) 전씨(全氏)와 동리주민(洞里住民)들에 의하여 광배(光背)1점(點), 불상대좌(佛像臺座)2점(點)은 발굴(發掘)하여 임의조립(任意組立)되었고 기타수점(其他數點)의 석조물(石造物)도 노출(露出)되었으며 기존(既存)한 2구(軀)의 불상(佛像)을 중심(中心)으로 2간의 불사(佛舍)를 결구(結構)하여 옥개공사(屋蓋工事)를 진행중(進行中)이었다. 이들 불상주위(佛像周圍)는 오래전부터 전답(田畓)으로 경작(耕作)이 되고 금번(今番)의 공사(工事)로 인(因)하여 표토층(表土層)은 교란(攪亂)되어 있었다.

이곳에 소재(所在)한 석탑(石塔)1기(基)와 석조불상(石造佛像)2구(軀)는 사지(寺址)와 함께 일찍이 조선총독부간(朝鮮總督府刊)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1942)에 소수(所收)된바 있으나 사명(寺名)은 알 수 없다. 필자(筆者)는 혹시(或是)나 하는 생각에서 현장(現場)에 임(臨)하기 전(前) 홍천읍(洪川邑)의 유일본(唯一本)인

“홍천읍지(洪川邑誌)(이조정조시작(李朝正祖時作))를 조사(調查)하였으나 사명(寺名)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부근(附近)의 수찰(首刹)인 수타사(壽陀寺)나 월정사(月精寺)의 보관문헌중(保管文獻中)에서 일명(逸名)을 찾게 되지 않을까 기대(期待)된다.

이하(以下) 이들 불적(佛蹟)을 설명(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2. 불적설명(佛蹟說明)

1. 삼층석탑(三層石塔) (도판(圖版)2)



圖 2. 삼층석탑(三層石塔)

화강암(花崗岩) 고(高) 401cm의 아담한 석탑(石塔)이다. 기단부(基壇部)는 지대석(支臺石)과 이중기단(二重基壇)으로 이루어졌다. 하층기단석(下層基壇石)은 일면(一面)을 제외(除外)하곤 삼면(三面)이 지대석(支臺石)과 함께 지하(地下)에 매몰(埋沒)되어 전면(全面)을 살필 수 없었으나 노출(露出)된 면(面)을 통(通)하여 보면 면(面)석(石)엔 2조(條)의 우주(隅柱)와 각면(各面)2조 전체(全體)8조(條)의 당주를 갖고 있다. 갑석엔 상층기단(上層基壇)을 받기 위한 물뿔이 있다. 상층기단(上層基壇)은 모두 6개의 면석과 4의 갑(甲)석(石)으로 조성(造成) 되었으며 면(面)은 동(東)과 서(西)에 각(各)1개(個)석(石) 남북(南北)엔 각(各)2개(個)석(石)으로 모두 4조(條)의 우주(隅柱)와 그 중앙(中央)에 1조(條)의 당주를 갖고 있다. 갑(甲)석(石)은 각기 규모(規模)가 다른 4개(個)석(石)으로 이루어졌고 그 위의 옥(屋)신(身)석(石)을 받기 위한 이중(二重)의 물뿔이 있다. 3개의 옥신석은 각각(各各) 1개(個)석(石)으로 되어 있으며 각기(各己) 우주(隅柱)들이 각출(刻出)되어 있다. 지상(地上)에 내려져 있는 삼층옥신석상면(三層屋身石上面)엔 원형(圓形)의 사리공(舍利孔)(경 12cm 심 7cm)이 보이나 내용유물(內容遺物)의 행방(行方)은 알 길이 없다.

각층(各層)의 옥개석(屋蓋石) 모두 층급(層級)받침이 오단(五段), 낙수면(落水面)은 단축(短縮)되고 추녀는 얇고 거의 수평(水平)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양각(□角)은 심한 요

선(凹線)을 이루고 있다. 상운부(相輪部)는 노반일석(露盤一石)만이 남아 현재(現在) 이 층옥개석(二層屋蓋石) 위에 올려져 있고 그 중앙(中央)엔 경(徑) 11cm의 원형 찰주공(擦柱孔)이 관통(貫通)하고 있다.

이중(二重)으로 된 기단부(基壇部), 옥개석구성수법(屋蓋石構成手法)이나 세부(細部)의 양식(樣式)이 모두 신라통일기(新羅統一期) 하대(下代)것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된다.

2. 석조비로사나불좌상(石造毘盧舍那佛坐像)(도판(圖版) 3)



圖 3. 석조비로사나불좌상(石造毘盧舍那佛坐像)

화강암(花崗岩), 불상고(佛像高) 180cm, 대좌고(臺座高) 89cm 불상(佛像)은 팔각연화대좌(八角蓮花臺座) 위에 정좌(正坐)하고 있다. 큰 육계(肉계鬘) 굽직한 나발(螺髮), 풍만(豐滿)한 얼굴이다. 눈은 내리 감고 입가엔 얇은 미소(微笑)를 느끼게 하며 비량(鼻樑)은 약간 마멸(磨滅)되었다. 비교적 짧은 목엔 삼도(三道)가 새겨져 있고 어깨는 통견의(通肩衣)를 걸치고 있으나 두(頭)나 슬(膝)에 비(比)하여 빈약(貧弱)하다. 양이(兩이(耳))귀는 길어서 목을 지나고 어깨까지 닿은 듯 하나 하단(下端)은 절단(切斷)된 듯하다.

두손은 가슴 앞에서 지권인(智拳印)을 결(結)하고 의문(衣紋)은 배면(背面)에도 나타나

있으며 전면(前面)과 함께 두터운 양감(量感)을 주고 있다. 결부(結趺)의 모습은 좌각(左脚)을 위로하고 우각(右脚)은 아래로 안으로 감춘 향마좌(降魔坐) 결가부좌(結跏趺坐)하고 있다. 이 경우 비교적 드문 현상이라 하겠다.

대좌(臺座)는 상중하(上中下) 삼개석(三個石)과 지대석(支臺石)으로 구성(構成)된 연화대(蓮花臺)로서 지대석(支臺石)의 하부(下部)는 지하(地下)에 매몰(埋沒)되었으나 팔각(八角)을 이루고 있다. 하대석(下臺石)은 복판팔엽(復瓣八葉)을 복치(伏置)하고 그 위엔 물뿔을 설치(設置)하여 중대석(中臺石)을 받고 이루고 있다. 중대석(中臺石)은 팔면(八面)을 가진 간석(竿石)으로 일면(一面)은 향로(香爐) 칠면(七面)은 주악상(奏樂像)을 각출(刻出)하였고 각각(各角)엔 주형(柱形)이 있다. 상대석(上臺石)엔 반구형(半球形)의 단판십육엽(單瓣十六葉)을 양화형식(仰花形式)으로 각(刻)하고 있다.

신라통일기하대(新羅統一期下代)로 추정(推定)한다.

3. 석조석가여래좌상(石造釋迦如來坐像)(도판(圖版) 4)



圖 4. 석조석가여래좌상(石造釋迦如來坐像)

화강암(花崗岩), 불상고(佛像高) 111cm, 대좌고(臺座高) 104.5cm, 대좌(臺座)위에 정좌(正坐)하고 있다. 나발(螺髮)과 육계(肉髻)을 갖고 있으나 마멸(磨滅)이 심하여 각선(刻線)이 선명(鮮明)치 않고 근엄(謹嚴)한 표정(表情)을 지은 듯 하며 안비(眼鼻) 모두 약간씩 파혈(破穴)되었다. 양이(兩耳) 역시 하단(下端)이 절단(切斷)되었고 목은 떨어진 불두(佛頭)를 올려 놓고 접착(接着)시키느라고 씨멘을 부착(附着)시켰다. 통견의(通肩衣)를 입고 가슴엔 군의(裙衣)의 매듭을 지었다. 우수(右手)는 무릎위에 느리고 좌수(左手)는 부탱(俯撐)으로 향마(降魔)의 인상(印相)을 하고 있다. 부좌(趺坐)는 길상좌(吉祥坐)로 걸가(結跏)하고 그 위에 의습(衣褶)을 수직(垂直)으로 느리고 있어 전기비로사나불(前記毘盧舍那佛)에 비(比)하여 다소 경화(硬化)한 느낌을 주고 있다.

불두(佛頭)와 무릎은 크고 동체(胴體)는 작아서 전체적(全體的)으로 부조화(不調和)를 이루고 있다.

대좌(臺座)는 상중(上中) 각(各)1개석(個石)과 하대(下臺)는 2개석(個石)으로 구성(構成)되었다. 하대석(下臺石)은 이층(二層)으로 하여 하부(下部)는 팔각(八角) 팔면(八面) 각면(各面)마다 안상(眼象)을 음각(陰刻)하고 그 내부(內部)에 일면(一面)은 향로(香爐) 여지칠면(餘地七面)은 “가라빙가”상(像)을 양각(陽刻)하였다. 이 팔각대석(八角臺石) 위엔 복판(復瓣) 팔엽(八葉)을 설각(設刻)하고 각판단(各瓣端)을 반전(反轉)시켜 귀꽃을 올렸다. 이들 팔판(八瓣)의 사이에는 꽃잎맥을 날카롭게 위로 끌어 올려 마치 입추형(立錐形)을 이루고 있다.

다시 이 복연석(伏蓮石) 위에 간결한 물뿔끝을 맺고 그 위에 팔각간석(八角竿石)을 놓았다. 각각(各角)엔 주형(柱形)이 있고 면(面)마다 팔부신상(八部神像)을 양각(陽刻)하였다. 상대양연석(上臺仰蓮石)은 반구형(半球形)의 단판(單瓣) 24개(個)를 상중하(上中下) 삼선(三線)으로 서로 엇갈리게 각(刻)하였다.

4. 석조광배(石造光背)(도판(圖版) 5)



圖 5. 광배(光背)

화강암(花崗岩), 고(高) 188cm, 장폭(帳幅) 128cm, 후(厚) 13cm

불상배면(佛像背面)에 맞추어 대좌(臺座)에 부착(附着)되었던 주형(舟形)의 화염광배(火焰光背)이다. 현상(現狀)은 전(全)씨(氏)가 예배(禮拜)하기 위(爲)하여 대좌상면중앙(臺座上中央)에 시멘트로 부착(附着)시킨 외(外)엔 거의 완전(完全)하다. 연화문(蓮花紋)이 있고 광배(光背)의 중앙(中央)에 이 연화(蓮花)의 자방(子房)을 확대(擴大)시켜 頭光의 중심(中心)을 삼고 있다. 이 연화(蓮花)의 외부(外部)도 이조선(二條線)을 각(刻)하여 내외구획선(內外區劃線)을 설치(設置)하고 다시 선상(線上)에 오체(五體)의 화불(化佛)을 배치(配置)하였다. 신광(身光)은 주형(舟形)을 표(表)했고 무문(無紋)의 넓은 공간(空間)을 두고 이 외곽(外廓)으로 이조(二條)의 선(線)을 상위구획선하부(上位區劃線下部)에서 발단(發端)하여 광배단(光背端)까지 완만하게 내리고 그 선상(線上)에 다시 사체(四體)의 화불(化佛)을 배치(配置)하였다. 외선(外線)에는 선단(線端)까지 둔(鈍)하고 단조(單調)로운 화염문(火焰紋)을 각(刻)하고 상위(上位) 연화(蓮花)를 중심(中心)한 내선(內線)에는 보상화문(寶相華紋)을 등글등글하게 무리를 지어 나타내고 하위(下位)의 내선(內線)에는 당초문(唐草紋)을 각(刻)하고 있다. 구체(九體)의 화불(化佛)은 모두 운상화불(雲上化佛)로서 정상(頂上)으로부터 3체(體)와 향우(向右) 하단(下端)의 1체(體)는 지권인상(智拳印相)을 한 비로사나불(毘盧舍那佛), 정상(頂上)에서 좌우(左右) 각(各) 4위(位)의 2체(體)는 법계정인상(法界定印相)을, 향좌(向左) 3위(位)와 하단(下端)의 2체(體)는 우수여원인상(右手與願印相)으로 볼 수 있으며 향우(向右) 3위(位)의 일체불(一體佛)은 좌우양수(左右兩手) 향마인상(降魔印相)을 하고 있는 형상(形象)이 아닌가 생각된다.

제작시대(製作時代)는 전기(前記) 석조불상(石造佛像)들과 동일(同一)한 시기(時期)인 신라통일기하대(新羅統一期下代)로 보인다.

5. 석조불상대좌(石造佛像臺座)(一)(도판(圖版)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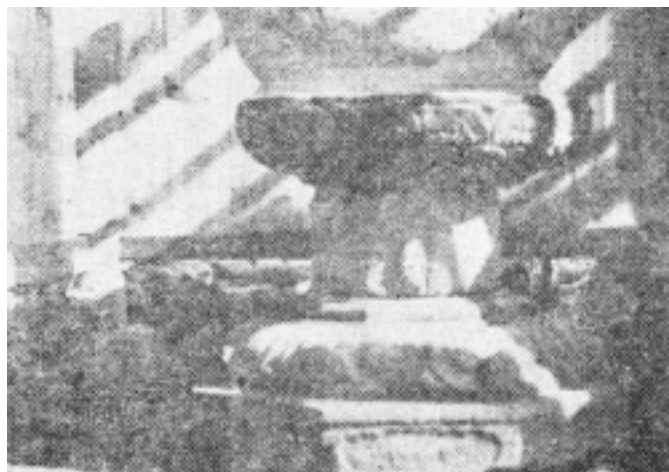


圖 6. 불상좌대기일(佛像座臺其一)

화강암(花崗岩), 고(高) 93.5cm.

현재(現在) 광배(光背)가 세워져 있는 이 대좌(臺座)는 상중하(上中下) 삼개석(三個石)으로 구성(構成)하였다. 대체로 전기(前記) 석가여래좌상(釋迦如來坐像)의 대좌(臺座)와 흡사(恰似)하나 상이(相異)한 점(點)은 하대석(下臺石)이 지대(支臺) 견연석이 일(一)개(個)석(石)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 높이가 낮은 반면 당석과의 접합부(接合部) 물뿔을 두드러지게 높이고 있는 점이며 지대석(支臺石)의 각면(各面)에는 안상(眼象)뿐이고 그 내부(內部)에 다른 조각(彫刻)을 두지 않고 있다. 역시 전기(前記)불상(佛像)들과 동일시기(同一時期)의 제작(製作)으로 보여진다.

6. 석조불상대좌(石造佛像臺座)(二) (도판(圖版) 7)



圖 7. 불상좌대기이(佛像座臺其二)

화강암(花崗岩), 고(高) 106cm.

이 대좌(臺座)도 석가여래좌상대좌(釋迦如來坐像臺座)와 전체적(全體的)으로 근사(近似)하나 복연석(伏蓮石)의 연판단(蓮瓣端)을 전기불상(前記佛像)은 귀꽃을 만들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단순(單純)히 첨단(尖端)을 날카롭게 반전(反轉)시키고만 있다.

또한 간석(竿石) 팔각각면(八角各面)에서도 전기(前記)5에서는 각각(各角)마다 주형(柱形)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두지 않고 있으며 면(面)에는 전기(前記)5와 달리 수원(隋圓)에 가까운 안상(眼象)을 음각(陰刻)하고 그 내부(內部)에 주악상(奏樂像)을 각(刻)하고 있다. 전기(前記)5. 와 동일(同一)한 시기(時期)의 작품(作品)일 것으로 추측(推測)된다.

7. 불상대좌하대석(佛像臺座下臺石) (圖版) 8)



圖 8. 불상대좌하대석(佛像臺座下臺石)

팔각(八角)의 하대석(下臺石)으로 보이는 이들 석조물(石造物)은 일면(一面)의 장(長)이 72cm 고(高)가 33cm로 현재(現在) 3개(個)가 발견(發見)되어 있고 그 중(中) 1개(個)는 130cm²의 정방형(正方形) 지대석(支臺石) 위에 놓여 있다. 4개(個)의 석(石)이 모여 이루어지는 이 하대석(下臺石)의 각면(各面)에는 횡장(橫長)한 안상(眼象)을 면(面) 가득히 새기고 그 내부(內部)에 다시 각기(各己) 두형태(頭形態)를 달리한 복사자(伏獅子)가 한 마리씩 양각(陽刻)되어 생동(生動)의 모습을 표(表)하고 있다. 이와 관련(關聯)하여 생각할 것은 지대석(支臺石) 직근(直近)에서 철제불두파편(鐵製佛頭破片) (도판(圖版) 9 및 10) 십수개(十數個)가 지표(地表) 가까운 지하(地下)에서 발굴(發掘)되어 현재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에 감정중(鑑定中)이다.

이 파편(破片)들은 안면(顔面)과 나발(螺髮)이 일부(一部)로 기중일(其中一)에 의(依)하면 「口」의 장(長)이 6.3cm, 비고(鼻高) 2cm의 규모(規模)로 되어 있고 나발(螺髮)도 6cm로 되어 있다. 이들을 통(通)하여 규지(窺知)되는 바와 같이 그 규모(規模)가 중대(中大)한 철불(鐵佛)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여기의 사자각(獅子刻) 석물(石物)은 철불상(鐵佛像)에 부대(附帶)한 대좌(臺座)의 하대석(下臺石)의 일부(一部)로 생각되며 이는 현덕수궁미술관(現德壽宮美術館)의 소장진열품중(所藏陳列品中) 광주(廣州) 하사창리(下史倉里)에서 일제(日帝)에 의하여 반이(搬移)된 거대(巨大)한 철조석가여래좌상(鐵條釋迦如來坐像)과 그 원소재지(原所在地)에 유존(遺存)하고 있는 대좌(臺座)의 석물(石物)들과 같은 형식(形式)과 수법(手法)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제작년대(製作年代)도 동시기(同時期)인 것으로 추정(推定)된다. 앞으로 사지(寺址)를 정리(整理)할시 철불상(鐵佛像)의 파손잔편(破損殘片)들과 석조대좌(石造臺座)의 잔여품(殘餘品)들이 발견(發見)되어 질 것으로 기대(期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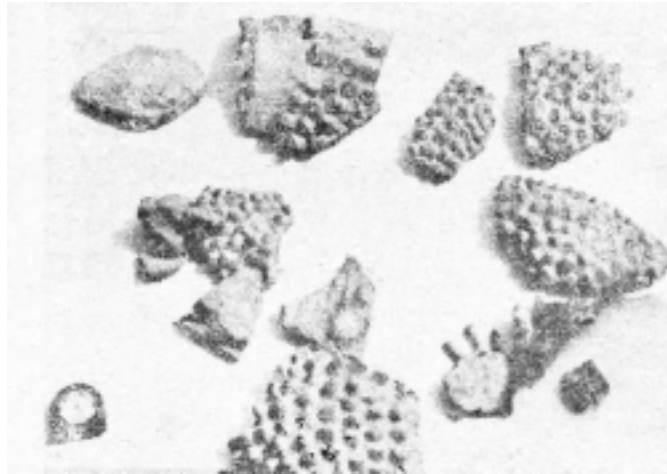


圖 9. 철제불두과편기일(鐵製佛頭破片其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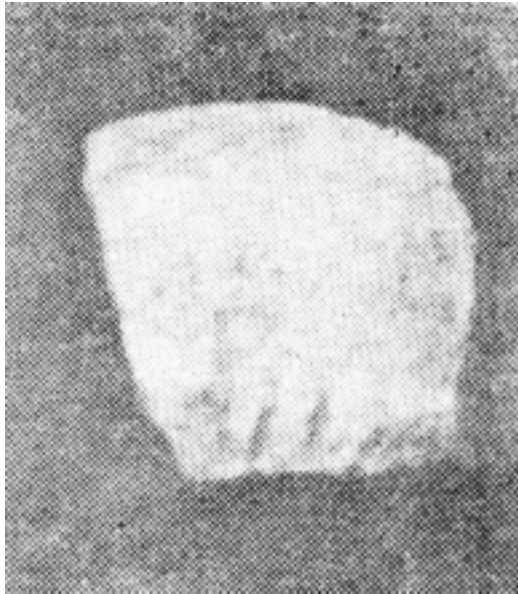


圖 10. 철제불두과편기이(鐵製佛頭破片其二)

8. 금동아미타여래입상(金銅阿彌陀如來立像) (도판(圖版) 11)

금동제(金銅製) 고(高) 15.5cm

장면(長面)에 뚜렷한 나발(螺髮), 크고 납작한 육계(肉髻)가 올려진 듯 되어있는 얼굴이다. 양이(兩耳)는 길어서 목까지 내려 오고 비교적(比較的) 길고 가는 목엔 삼도(三道)가 선명(鮮明)하다. 불신(佛身)에는 폭넓은 통견의(通肩衣)를 걸치고 있고 의습(衣褶)은 자연(自然)스럽게 아래로 흐르고 있다. 우수(右手)는 들고 좌수(左手)는 내려 각기(各己)현탱(現撐)한 시무외인상(施無畏印相)을 하고 있다. 허리는 잘숙하게, 양지(兩肢)는 육조식(肉彫式)으로 각각(各各) 표현(表現)하였고 전체적(全體的)으로 상반신(上半身)을 뒤로 젖혀서 생동(生動)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들은 모두 신라통일기중대(新羅統一期中代)의 제특징(諸特徵)을 갖고 있으며 이 사지(寺址)에서 발견(發見)된 제불적중(諸

佛蹟中) 가장 연대(年代)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전씨(全氏)말에 의(依)하면 도금(鍍金)은 발견시(發見時)에는 거의 완전(完全)한 것을 일부러 긁고 닦아서 현재(現在)는 흔적(痕迹)만 약간(若干) 남기고 있다. 대좌(臺座)는 흠실(欠室)되었다.



圖 11. 금동아미타여래입상(金銅阿彌陀如來立像)

3. 후기(後記)

이상(以上) 동창리(東倉里) 일명사지(逸名寺址)에 소재(所在)한 불적(佛蹟)들은 신라통일기(新羅統一期) 중대(中代)에서 하대(下代)(대략(大略) 8세기(世紀)-10세기(世紀)) 또는 고려초기(高麗初期)에 걸쳐 이루어진 작품(作品)들로 보여진다.

불상(佛像)을 중심(中心)한 건물지(建物址)의 지층관계(地層關係)를 조사(調查)하기 영(營)하여 불상전방(佛像前方)에 광(廣)1m² 심(深)1m의 Pit를 넣어 보았으나 오랫동안 경작(耕作)에 의하여 표층(表層)이 교란(攪亂)된데다가 금번(今番) 전씨(全氏)의 공사(工事)로 인(因)하여 완전(完全)히 파괴(破壞)되어 실(實)을 얻지 못했다.

이 지역(地域)이 특(特)히 주목(注目)되는 것은 강원지방(江原地方)에서 태백산맥(太白

山脈)을 중심(中心)으로하여 영동지방(嶺東地方)에는 강릉(江陵)과 양양(襄陽)을 비롯하여 신라시대(新羅時代)(삼국시대(三國時代) 급(及) 통일기(統一期))의 유적(遺蹟)이 다수 분포(多數分布)되어 있으나 영서(嶺西)의 지방(地方)에는 그 유례(類例)가 극(極)히 드물다 하겠다.

현존(現存)한 신라유적(新羅遺蹟)으로는 같은 홍천군두촌면(洪川郡斗村面)의 괘석리(掛石里)와 장남리(長南里)의 탑수기(塔數基)가 있을 뿐이다. 앞으로 이들에 관심(關心)을 갖고 이 지역(地域)에서 우리의 상대유적(上代遺蹟)을 심색(深索)할까 한다. (1967. 5)